

**제3차 이사회 및
제4차 통합경영분과 위원회 개최
회원 및 회비규정 개정 및 분과위원회
규정 승인**



본회는 지난 3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진 제3차 이사회 및 제4차 통합경영분과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육계농가의 회원가입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육용종계장 및 부화장에서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승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회원의 업종별 자격기준 중 육계사육농가 자격기준을 3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또는 법인) 또는 2만수 이상 규모의 육용종계를 사육하고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또는 법인)로 완화·확대했다.

특히 육계사육농가의 경우 본회 계열생산 주체와 계약사육하는 농가로서 계열주체가 추천하는 농가들에 대해선 가입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사육을 포함한 본회 회원사 소유 육용종계 사육수수가 60%에 이르고 99개소의 종계장에 위탁사육하고 있는 육용종계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정보공유 및 수급관측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키 위해 '육용종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주)해표푸드서비스, (주)신명, (주)산하의 정회원 가입신청서 승인(안)과 2004년도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규정(안)도 함께 승인했다.

한편 종계보유 개념이 복잡하여 감축계획 수립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종계보유수수 조사시 직영종계, 위탁종계, 기타종계(종란구매, 시세구매, 계약구매)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주)해표푸드서비스 · (주)신명 ·
(주)산하,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

**본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의 회원사
16개 업체로 증가**

지난해 본회를 탈퇴했던 (주)해표푸드서비스(대표 이종웅)가 본회 회원으로 재가입을 신청해왔다. 또한 전북지역 육계 계열화 업체인 (주)신명(대표 이재철)과 강원지역의 (주)산하(대표 정영호)도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본회는 지난 3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들 3개 업체의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이로써 본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사는 기존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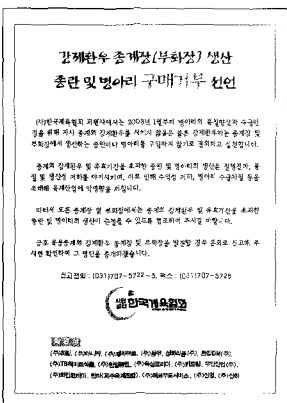
이번에 (주)해표푸드서비스와 (주)신명, (주)산하 등 3개 업체가 본회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명실공히 국내 모든 육계 계열화 업체가 본회와 뜻을 같이하게 되었으며, 향

후 본회를 주축으로 16개 회원사가 화합·단결하여 현재 계속업체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회원가입내역>

	(주)해표 푸드서비스	(주)신명	(주)산하	
대표자	이종웅	이재철	정영호	
주소	경기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637-1	전북 익산시 부송동 190-9	강원 강릉시 두산동 2-2	
업종	계열생산, 종계 및 부화장, 가공장, 유통	계열생산, 부화장, 도계장, 배합사료공장, 유통	계열생산, 도계장, 유통	
규모	계약 농가수	120	90	7
	도계 생산능력	10만수/일	5만수/일	3만수/일

종계 강제환우 및 유효기간을 초과 생산한 종란·병아리 구매거부 실천
본회 홈페이지 공지 및 전문지에 광고 홍보



현재 종계의 강제환우 미 유효기간을 초과한 종란 및 병아리의 생산 공급은 질병전파와 병아리 품질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 병아리 수급차질 초래

등 육계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회는 2003년 1월부터 종계의 강

제환우를 시키지 않음은 물론 타 종계장(부호장)에서 종계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생산한 종란 및 병아리에 대해 구매를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향후 종계를 강제환우하는 종계장 및 부화장을 발견할 경우 본회로 신고하면 확인 후 그 명단을 공개하여 종계 강제환우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본회는 이같은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는 물론 전문지(신문·잡지)에 3~4월간 광고(홍보)하고 있다.

육용종계 50만수 감축키로 합의
본회 회원사와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 위원회 공동 실시

육용종계 50만수가 조기에 도태된다. 본회 한형석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양계협회(이언중 부회장)와 육용종계 50만수를 조기에 도태키로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한형석 본회 회장과 이언중 양계협회 부회장은 현재 육계 및 계속업체가 맞고 있는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계의 조기도태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종계도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본회 회원사가 2002년에 입식한 종계중 (주)하림의 사육물량을 포함하여 40만수의 종계를 조기도태키로 했으며, 대한양계협회(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에 입식된 물량중 10만수를 도태키로 했다. C